

자기개발

외국어 공부에 14만원




2008년 무자년 새해가 활짝 열렸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2007년을 뒤로하고 올해는 새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하는 뜻 깊은 한 해이기도 하다. 연초가 되면 이런 저런 다짐이나 계획들을 많이 세우기 마련인데, 특히 직장인이라면 자기개발에 관한 사항들이 많을 것이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이 시대에 오직 자기개발을 통한 커리어 쌓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기개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외국어 공부, 새벽밥을 먹으며 학원으로 외국어공부를 위해 전날 술자리도 마다하고 외국인 강사의 발음을 따라하는 직장인의 모습은 이제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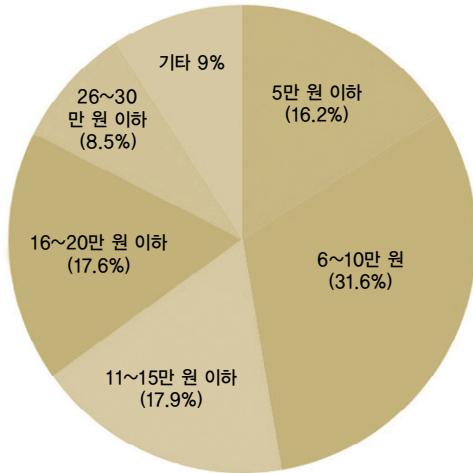
한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직장인 894명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들이 외국어 공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비용이 한 달에 1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외국어교육을 받고 있고, 월 평균 14만8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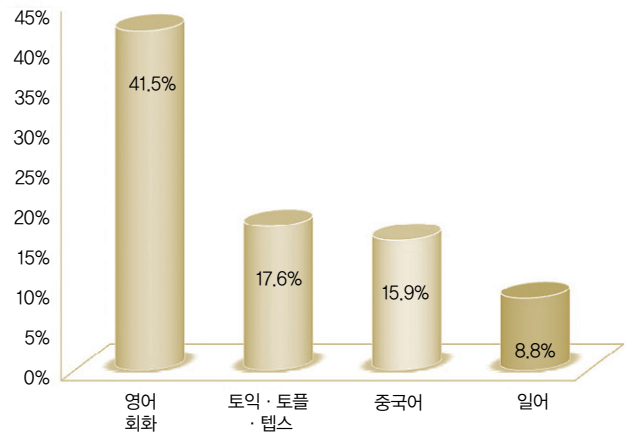
잡코리아가 직장인 지식포털 비즈몬과 함께 직장인 894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 현황과 비용'을 설문조사한 결과 40.7%가 '현재 외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외국어 학습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14만8천원이다.

월평균 교육비용을 금액별로 보면 6~10만원(31.6%), 11~15만원 이하(17.9%), 16~20만원 이하(17.6%), 월평균 5만원 이하(16.2%), 월평균 26~30만원 이하(8.5%) 등의 순이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는 외국어 공부는 영어회화(41.5%)였다. 이어 토익·토플·토픽스(17.6%), 중국어(15.9%), 일어(8.8%) 등의 순이다. 남성과 여성 직장인을 비교하면 남성 직장인(43.5%)이 여성 직장인(36.2%)에 비해 외국어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한 관계자는 경쟁사회에서 직장인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 외국어를 위한 월평균 교육비용 〉



〈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는 외국어 〉

...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내 안에 있는 창조성을 끌어 내는 방법은 한 질문에 대해 20가지 대답을 찾는 것으로 다른 말로는 '마인드 스토밍(Mind-Storming)'이라고 한다. 이는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거의 매일 "어떻게 하면 제 사업이, 제 인생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편지 혹은 이메일을 받는다. 이제 해답을 알려드리겠다. 방법은 단순하다. 언고자 하는 목표나 해결하고픈 문제들을 질문 형식으로 정리하라. 예를 들어 만약 이달 말까지 당장 5만불을 더 모아야 한다면 '어떻게 말일까지 5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쓰면 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최소한 20개 이상의 답을 정리해 보자. 쉽지 않은 일이지만 20여개 답변을 적어 내려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내면의 창조적인 생각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3개에서 5개까지의 답은 쉽다. 그 다음 5개에서 10개의 답을 쓰는 건 체법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고는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게 고통스러운 만큼 힘들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의 폭은 넓어질 것이고, 답을 찾다보면 몇 달에 걸쳐 결국에는 20개 이상의 해답을 만들어내게 된다. 여기서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에 대한 20개의 답변을 정리하고 나면, 그 중 하나를 골라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관건이다. 일단 이렇게 한 가지를 실행하고 나면 마음 속에 잠자고 있던 창조의 욕구가 용솨음치며 이어질 것이다. 그 다음 몇 시간 동안은 조명의 전구가 반짝이듯,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멋진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쏟아낼 것이 분명하다.

- 브라이언 트레이시, 크런치 포인트(Crunch Point) 중에서